

200자 안내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최용식 지음

‘정치와 경제문제연구회’ 연구실장으로 있는 저자가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한다는 야심에 찬 의도에서 출발, 10여년간 각종 이론서를 섭렵하는 가운데 얻은 독특한 시각으로 저술한 경제학 이론서. 자본주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을 하나의 이론체계 속에서 융화시키는 독특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울 / A5신 / 302면 / 5200원

우리집 식구는 아무도 못말려

맹명관 지음

한겨레신문에 ‘육아일기’를 연재하여 인기를 끌었던 생활칼럼니스트이자 카피라이터인 저자의 일곱번째 창작집.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해프닝들을 감동적이고 코믹하게 그린 가족테마 에세이로, 「아빠가 쓴 육아일기」 등 60여편이 실려 있는데, 다섯살짜리 딸과 이 시대의 페미니스트로 자부하는 아빠와 자상한 엄마가 엮는 이야기가 자못 감동적이다.

영웅 / A5신 / 284면 / 3800원

절망을 건너는 법

김명인 엮음

김지원·김향숙·최인석·이경자·조선작 등 소설가 8인의 결혼을 주제로 한 소설 13편을 묶은 테마소설집. 결혼이 사랑의 최소한의 열정의 끝이라고 한다면 타고 남은 재와도 같은 결혼생활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여, 온갖 고비를 넘긴 결혼생활의 원숙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신화된 결혼의 피폐화된 사회현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국민서관 / A5신 / 288면 / 4000원

언론의 4이론

프레드 시버트 외 지음 / 강대인 옮김

언론제도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관통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리 4가지를 소개했다. 언론의 권위주의 이론,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 언론에 관한 사회적 책임 이론, 언론에 관한 소비에트 공산주의 이론이 그것으로, 국가나

사회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취하면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기능하게 된 원인과 배경 등을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이념적 기본원리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비교적 균형잡힌 시각으로 씌어졌지만 서구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뒷받침해주는 자유주의 이론의 비중이 크다는 것이 역자의 지적.

나남 / A5신 / 208면 / 4500원

가장무도회는 끝내야지요

염기용 지음

조선일보 출판부장으로 있으면서 볼테르의 「칸디드」, 알랭의 「행복론」, 루소의 「고독한 산보자의 꿈」 등을 번역한 바 있는 저자가 ‘기자 29년’의 집검표를 삼고 싶은 마음으로 그동안 일기처럼 써모은 글을 간추려 엮었다. ‘촌지의 반성’ ‘고스톱의 매력’ ‘여교사의 해직’ ‘전교조 증후군’ ‘통독 알레르기’ 등등 저자의 냉정하지만 따뜻한 시선이 3부로 나뉘어 묶여 있다.

늘푸른 / A5신 / 356면 / 4300원

사는 게 뭔지

이호광 지음

시인이자 칼럼니스트이며 폰트작가로 잘 알려진 작가의 사회비평 폰트집. 우리가 살면서 겪는 별의별 사연들을 작가 특유의 원색적인 해학과 위트, 풍자로 펼쳐보이고 있다. 제1장 ‘웃기는 셀러리맨’에서는 익살꾼들이 연출하는 직장생활 풍자극을, ‘나도 고개숙인 남자’에서는 코믹 홈드라마를, ‘이런 세상 꼴불견’에서는 꼴불견 사태의 폭소 단막극을 담고 있다.

대학출판사 / A5신 / 268면 / 3800원

끝난 곳에서 길은 시작되고

노신 지음 / 김원중 옮김

중국 백화문을 현대 중국문학사에 정착시킨 선구자로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란 칭송을 받는 작가의 산문집. ‘노신문학의 축도’라 불리는 「들풀」과 「열풍」을 완벽해 수록했는데, 1부에서는 민중들이 겪은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패배의식을 비판한 산문 23편을 실었으며, 2부에는 한 지식인의 냉철한 현실인식을 담은 산문 42편이 수록됐다.

현대문화센터 / A5신 / 232면 / 4000원

시와 혁명

김남주 지음

저항시인으로서의 면모가 강했던 시인이 자신의 문학관, 사상관, 인생관, 성장배경 등을 밝혔다. 1장에서는 그가 바라보는 시와 변혁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2장에서는 영향을 받았던 외국작가들에 대해서, 3장에서는 사회·사상적 시각에서 바라본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4

장에서는 자유기고가 차미례씨와 시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나루 / A5신 / 242면 / 3800원

이런 아이들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김재은 지음

아이들의 행동상의 문제와 부모 자신의 문제해결의 방법을 여러 상황과 사례를 들어 설명한 육아교육 지침서. 아이들의 문제행동의 뒤에는 항상 부모의 허점이 숨어 있음을 일깨우면서, 거짓말을 잘 하거나 수줍음을 타는 아이, 도벽이 있거나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책을 더듬거리며 읽는 아이 등의 지도방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샘터 / A5변형 / 252면 / 3000원

재미있고 즐거운 심리학

시라이지 고우이찌 지음 / 박달규 옮김

남녀의 심리구조와 동태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예로 알기쉽게 설명한 안내서. 1부 남성심리 연구에서는 왜 남자는 뽀내기가 좋아하고 허풍을 떨며 여성에게 시선을 주는가 하는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설명했고 2부 여성심리 연구에서는 여자는 왜 유행에 약하고 공상을 즐기며 무드에 약한가를 분석한다. 이밖에 남녀의 성격특성과 성격차이의 선천성 등의 논란을 소개했다.

한국산업훈련연구소 / A5신 / 230면 / 4000원

나의 길 나의 삶

동아일보사출판부 엮음

지난 2년간 동아일보 일요컬럼란에 연재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던 名士 60명의 ‘나의 삶 나의 길’을 책으로 묶었다. 고은, 권정생, 김정옥, 김성중, 박용구, 변형운, 한만년, 최민식 등 일제와 6·25 등 우리 현대사의 가장 힘든 시기에 성장기를 보낸 그들이 방향과 좌절을 딛고 자기분야에서 온전히 뿌리를 내리기까지 속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자기만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고 있다.

동아일보사 / A5신 / 350면 / 4500원

香水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 / 강명순 옮김

냄새를 감별해 내는 데 천재적인 능력을 타고난 주인공 그르누이가 자신이 만든 향수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독특한 내용의 소설. 지상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스물다섯번에 걸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주인공의 악마적인 일대기가 기상천외하게 펼쳐진다. “놀라우면서도 동화같다”는 평가 함께 세계 30여개 언어로 번역, 발표된 지 2년만에 200만부가 팔려나간 초베스트셀러.

열린책들 / A5신 / 336면 / 4500원

로미오의 실수

라이얼 왓슨 지음 / 박문재 옮김

다양한 자료와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삶과 죽음에 관한 논의를 소개한 책. 초월적 힘에 의한 자연현상에 주목했던 저자가 영혼의 문제를 민간신앙의 차원이 아닌 과학적 형태로 파헤치고 있다. 요가철학에서의 氣, 과학의 생 플라즈마체가 생명의 근원인 영혼임을 해명하고 이를 토대로 깨달음, 유체이탈, 귀신들림, 환생 등의 현상을 설명한다.

인간사 / A5신 / 324면 / 4500원

한국인의 웃음

申潤祥 지음

선인들의 해학이 담긴 옛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격을 정신분석학적 측면에서 밝힌 책. 처용과 흥부의 한국 특유의 웃음을 전하는 인물과 황희, 성삼문·김삿갓 등 너그러움과 배짱이 조화돼 나온 정조어린 해학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웃음들을 정리했다. “고통스런 상황에 직면해도 격동적으로 육체화하지 않고 억제하며 정적으로 승화시켰다”는 데 한국유머의 독특한 점이 있음을 간파해낸다.

덕성문화사 / A5신 / 316면 / 4000원

韓國人의 버릇

이규태 지음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비롯해 수많은 저서를 통해 우리나라 민족의 고유한 심성을 뿌리부터 캐내보였던 저자가 한국인의 「버리고 싶은 버릇」에 이어 두번째로 펴낸 「살리고 싶은 버릇」에 관한 이야기다. 신바람 정신이나 한술밥, 막걸리, 사랑방 문화, 모유, 손님맞이 등 한국인의 버릇 가운데 더욱 다듬고 살려야 할 것들을 해박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소개하고 있다.

신원문화사 / A5신 / 372면 / 5000원

일본 유학생의 한국체험

히다카 유니 지음 / 김재영 옮김

일본 오사카대 조선어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와 연세대 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바 있는 저자의 한국 체험기. 81년 봄부터 87년 가을까지 6년반을 서울에 살면서, 특히 신촌을 중심으로 저자가 보고 듣고 느낀 자신의 주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전해준다. 우리에게서 너무 익숙한 우리의 생활풍경과 문화의 참모습을 외국인의 시각을 통해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서울포럼 / A5신 / 248면 / 4000원

완전한 깨달음 그 이후의 삶

素空慈 지음

자연의 근본적인 메카니즘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지칭하는 ‘Only sir’로 불리며

‘완전한 깨달음, 그 이후의 삶’ 즉 ‘超驗’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저자의 초협센타에서의 강의를 모은 책. 흥미있는 예화와 저자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 과정과 깨달음 이후의 실제 체험을 통해 사랑과 창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골든북 / A5신 / 392면 / 4500원

신나는 별자리 탐험

이광식 지음 / 채주현 그림

우주에 대한 어린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별자리 관찰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끔 한 책. ‘신비의 바다, 우주’ ‘별의 움직임과 방위’ ‘지구의 친구들’ ‘사계절의 별자리’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우주의 구성과 원리, 별의 움직임, 별자리 찾는 법, 별자리에 얽힌 전설 등을 재미 있고 알기 쉽게 설명한다. 그림과 사진을 곁들여 흥미를 더했다.

고려원미디어 / A5신 / 218면 / 3000원

너에게만 하는 얘긴데

스포츠조선 문화연예부 엮음

김희애, 황신혜, 최민수, 김민우, 이응경, 최수중, 오연수, 강수지 등 최근 대중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인기스타 8인이 스포츠조선의 지면을 통해 팬들 앞에 공개한 여러 이야기들을 엮은 책. 스타들의 사생활, 사랑, 그리고 인기인이 되기까지의 숨은 일화 등이 흥미롭게 읽히는 한편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대중스타들의 숨은 고충과 피나는 노력의 면모들도 접할 수 있다.

장원 / A5신 / 290면 / 4500원

내가 밤보다 새벽을 사랑함은

이경아 지음

「이런 사랑이고 싶습니다」 「아무말 앓는다고 해서 가슴까지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의 시집을 낸 바 있는 시인의 두번째 산문집.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합니다’ ‘군고구마’ ‘좀더 낮은 자리에서’ 등 총 41편의 글을 수록했다. 간결하면서도 윤희를 지닌 시적인 문장이 특징인 이 책의 글들에는 기독교적 휴머니즘에 바탕을 두고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도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려는 시인의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혜진서관 / A5신 / 392면 / 4000원

비즈니스 정보 만들고 쓰는 법

김효진 외 지음

점차 전파되어가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점점 증가는 정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을 몰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이들을 위한 책. 경쾌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정보의 생산, 분석, 관리, 활용의 분야를 실질적인 요구와 필요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사무실 정리방법에서 명함 정리법까지 비즈니스맨의 정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총집결되어 있다.

정보성 / A5신 / 222면 / 3000원

에세이 세계사(고대편)

大月書店 편집위원회 지음 / 이윤희 편역

어딘지 모르게 딱딱하고 지루한 세계사를 친근하게 대할 수 있게 엮은 ‘역사에세이’. 일본 大月書店에서 출간된 「世界와 日本의 歴史」(전12권) 중 세계사에 관련된 부분만 정리하여 5권으로 펴냈는데, 그중 제2권이다. 역사는 오리엔트로부터, 대왕의 등장, 갠지스강의 축복, 황하의 물결, 꿈의 나라 그리스, 로마로 가는 길 등 5장으로 구성돼 있다.

백산서당 / A5신 / 236면 / 3800원

TV를 읽읍시다

김창남 외 지음

지난 3년간 한겨레신문 방송주평란에 실렸던 TV비평글을 모았다. TV를 단순한 ‘그림상자’가 아닌 현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매체로 파악, TV프로그램이 생산·소비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살피므로써 TV매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준다.

한울 / A5신 / 408면 / 5500원

제갈량— 사람을 움직이는 지혜50

강무학 옮김

제갈량이 역대 명장들의 전사와 병서를 숙독하여 만든 지침서를 바탕으로 古代史연구가 강무학씨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 새로운 해석을 덧붙여 엮었다. 훌륭한 참모의 자격, 사람됨을 파악하는 방법, 인재를 고르는 방법, 경쟁에서 이기는 전략전술 등 실무적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50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 A5신 / 192면 / 3200원

의원님은 아무나 되나요

김수용 지음

지난 85년 1천만원고료 제5회 소설문학상에 「청맹과니의 노래」로 당선, 공해문제와 환경문제 등 주로 사회성 짙은 소설을 써왔던 작가가 이번에는 울초 광역의회선거에도 출마했다 부정과 돈이 판을 치는 대세에 밀려 야당후보로는 ‘당연한듯’ 낙선한 경험을 토대로 정치풍자소설을 내놓았다. 금방이라도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을 듯한 空約에 아연실색, 어린아이 소꿉놀이만도 못한 정치판에 환멸을 느끼고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투신, 뉴스의 초점이 되기도 했던 작가가 들려주는 웃지못할 정치판의 이야기가 쓴웃음을 자아낸다.

글사랑 / A5신 / 274면 / 3800원

朴權相의 時論

박권상 지음

언론인 박권상씨가 「동아일보」 「時論」란에 연재해온 77편의 칼럼을 모아 엮었다. 86년 7월부터 91년 9월까지 발표됐던 글들을 낱씨순으로 묶어 각 시기의 정치·사회의 주요 논쟁점들을 일별해볼 수 있다.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타협의 원칙을 중시하지만 원칙의 타협은 단연코 배격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

열림원 / A5신 / 362면 / 5500원

나무는 왜 겨울에 옷을 벗는가

김병규 지음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동화와 희곡이 각각 당선돼 문단활동을 시작, 여러 권의 창작동화집을 펴낸 바 있는 작가의 신작 모음. 점차 잊혀져 가는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풍물과 사람이 지녀야 할 따뜻한 심성의 모습을 잔잔하게 묘사한 작품 21편을 ‘따뜻한 동화들’ ‘가슴으로 읽는 동화들’ ‘머리로 읽는 동화들’의 3부로 나누어 묶었다.

대원사 / A5신 / 222면 / 3000원

스트로볼로스의 마법사

K.C. 마르키데스 지음 / 이균형 옮김

초자연적 힘으로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神癒家’ 다스칼로스의 독특한 삶과 신비체험, 사상을 한 사회과학자가 객관적 시각으로 관찰 기록한 책. 척추장애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등 다스칼로스가 행하는 기적적인 치유를 포함해 저자가 목격한 불가사의한 현상들과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 신비주의 사상을 소설형식으로 구성했다.

정신세계사 / A5변형 / 292면 / 4200원

하늘 아래 작은 집

李相範 지음

6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일석권」으로 데뷔한 시인의 9번째 시집.

시인이 꾸준하게 추구해온 순수사랑과 서정의 세계를 정리한다는 의도로 그동안 발표했던 작품들 중 70여편을 골라 ‘오두막집行’ ‘작은 스푼’ ‘밤’ ‘개다리소반’의 4부로 나눠 묶었다. 기존 시집의 판형에서 벗어가 가로 11cm, 세로 13cm의 크기로 축소된 점이 독특하다.

토방 / 변형판 / 142면 / 2500원

당신이 그런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팀 라헤이 지음 / 황의정 옮김

한 사람의 기질을 잠자는 습관에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방법 등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나의 기질은 무엇이며 그

기질에 적합한 직업과 직장내의 용도, 기질에 따른 감정의 극복방법 등을 소개한 책. 기질의 12가지 유형 가운데 나의 기질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검사도 병행함으로써 기질에 따른 장단점과 잠재력을 알아본다.

예찬사 / A5신 / 340면 / 5000원

계절따라 성령따라

서광선 지음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인 저자가 교목으로 주일마다 설교한 내용들을 한데 모았다. “한 손에 일간신문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성서를 들고 설교를 준비했”다는 말대로 현실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저자의 시국판도 적잖이 반영돼 있다. 대학교회 주일예배에서 읽은 기도문을 모은 기도문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이번에 함께 출간.

正宇社 / A5신 / 278면 / 4000원

계간지

時調生活

[제10호 발간기념 중국 특집] ▲특별좌담(중국 조선족 문인협회장) ▲중국 조선족 시조시문학상 발표 ▲중국 조선족 시조단(19인집) ▲在蘇韓人社會에서의 時調의 가능성(이응백) ▲몽골 초원의 숨결(朴鶴培) [평단] 여성시조의 가능성(정시운) [논단] ▲歌曲源流研究(황순구) ▲知命의 언덕에서(김중) [특별탐방기] 서한샘 박사 편 [名時調英譯] 이희승·한용운 편(김재현) [가을시조단] 장순하 / 유성규 / 김해성 / 공석하 / 박재두 / 문도채 외 [명사시조단] 이응백 / 한순보 / 박종혁 / 김수영 / 유광열 외 [신인문학상 당선작 특집] 박찬옥 / 김영옥 / 유지화 / 이석규 외 [시조짓는 법] 유성규 시조생활사 / A5신 / 260면 / 3000원

